

III 민주주의

• 민주주의라는 말의 뿌리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에 기원이 있는데 민중(demos)이 지배(kratos)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에서 민주(民主)는 백성, 즉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지배하는 대신,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행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인이란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진짜 원천은 몇몇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에게 있다.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demos를 ‘민중’, ‘인민’, ‘국민’ 등으로 이해하면 고대 그리스처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면을 강조하게 된다. demos를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다수’로 이해하면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처럼 (대표자가 대리하기는 하지만) 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생활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그 범위와 의미를 더욱 넓게 설정한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처럼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민주주의로 이해한다. 국가는 물론 가정, 학급 동아리, 동창회 같은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모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 설규주,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

III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란 국가 권력의 창설과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최종적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하고,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원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 김현철 외, 『한국인의 법과 생활』

III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자유:**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평등:** 성별, 인종, 재산, 종교, 장애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III 민주주의 체험관

장소	주요 내용
국회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로 국회를 살펴보고 민주주의를 배우는 체험 전시 공간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누리집 주소: museum.assembly.go.kr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체험과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선거 홍보관 • 주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 누리집 주소: www.nec.go.kr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 누리집 주소: www.much.go.kr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III 민주시민의 역량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핵심 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 공공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 교육부,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III 학교 자치의 법적 근거

「교육 기본법」 제5조 ③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 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III 학생 자치 활동

• 학생 자치 활동의 목적

학생 자치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포용성과 창의성, 자기 주도성을 고양하며, 학생 주권을 통해서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학생 자치 활동의 3대 원칙

학생 존중의 원칙	학생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 책임의 원칙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을 진다.
활동 참여의 원칙	학생은 수업, 선거, 행사 등 학교생활에 있어서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정치적 의견, 성별, 병력, 징계, 성적 등과 관계없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울산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2023년 학생 자치 길라잡이」

III 학급 자치 활동

• 학급 자치 활동의 정의

- 학급 자치는 자율과 자치를 통해 학급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책임지는 활동이다.
- 교실에서 느끼는 불편한 문제나 학생의 권리와 복지 등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이 학급 자치라고 할 수 있다.

•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급 자치 문화 조성

학생의 참여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운영과 비전을 위한 철학과 방향 등을 함께 정하기 • 학급 공동체가 지켜야 할 약속이나 규정을 만들고 지키기 • 학생의 권리와 복지 등에 관해 관심을 두고 실천하기 • 학급 자치회에 참여하고 용기 있게 요구하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기 • 행사 중심의 학급 운영을 넘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기
교사의 관점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등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여 학급 임원 선출하기 • 학급 자치회 각 부서의 연간 계획에 맞는 예산 편성과 운영권 지원하기 • 학생의 관점에서 학급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기 • 학급 철학과 비전 및 연간 계획을 학생이 주도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기 • 학급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존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효능감 느끼게 해 주기

-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학급 자치 길라잡이」

☞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학급 회의

• 학급 회의의 목표

학급 회의는 학급의 일을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이 아닌 ‘자발적인 해결’이 그 중심에 있다. 학급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언어와 사고가 확장되며, 이해와 존중·합의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 학급 회의는 문제를 경험하기 전에 의견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보는 선행적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 다수결이 항상 올바른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의를 통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문제 해결의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연습
이해와 존중	서로의 이야기 경청
언어의 발달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연습
사고의 확장	스스로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 경험

• 학급 회의의 순서

학급 회의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주제 선정, 주제 토의, 표결, 결과 발표, 폐회 선언 순서로 진행된다.

개회 선언	학급 위원이 학급 회의가 시작됨을 선포한다.
국민의례	애국가를 제창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
주제 선정	오늘 학급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토의하고 표결할 것인지 발표·정리한다.
주제 토의	선정된 주제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다.
표결	선정된 주제별로 도출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관해 투표한다.
결과 발표	표결로 결정된 사항을 학급 위원이 학우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선포한다.
폐회 선언	모든 주제의 토의를 마무리한 후, 학급 위원이 학급 회의가 끝났음을 선포한다.

• 학급 회의를 할 때 주의할 점

- ① 친구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는다.
- ② 발언은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한다.

- ③ 회의의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 ④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천하도록 하고, 다음 학급 회의를 통해 바로잡는다.
- ⑤ 지난 회의에 관한 평가와 새로운 안전에 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공식 블로그

☞ 대화와 타협

누군가 소수 의견을 취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다수 의견을 따른다면 다수결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 이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표현, 대화, 타협 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여러 노력과 과정을 거쳤는데도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수결을 사용할 때도 ‘다수’의 기준과 다수결로 정할 사항의 범위 등을 먼저 대화하고 타협하여 결정해야 한다.

☞ 다수결의 원칙

대화과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사람이 찬성한 쪽으로 결정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을 수량적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올바른 소수 의견이 배척당하는 경우가 생겨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 즉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결의 원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이념, 신념 체계)의 대립에는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이나 신념은 다수결에 따라 통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구성원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개인은 동등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의견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

셋째, 구성원의 자율성이 요구된다. 개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토론하고 그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강요나 협박,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수결은 의미가 없다.

넷째, 각 의견의 상대성을 전제로 한다. 어떤 가치에 대한 어느 한 개인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 즉, 가치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수결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이상수,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 사전』

☞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 주의할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한다. 대통령과 국회 의원 등을 뽑는 선거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하는 반장 선거와 학급 회의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늘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은 의견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종종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을 펴거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럴 때 다수결의 원칙은 숫자만 따르는 단순한 민주주의 규칙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바람을 담아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각 의견의 장단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의견이라도 그것을 반대했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생각이 꼭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 조항록,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 학급 회의 기술 익히기 활동 - 다름을 존중하기

• 활동 목표 및 준비물

- 활동 목표: 모든 사람은 다른 존재이며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준비물: 사자, 독수리, 거북이, 카멜레온 그림 각 한 장, 활동지

• 활동 방법

- ① 교실의 네 귀퉁이에 활동지를 한 장씩 둔다.
- ② 사람은 서로 다르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 ③ 네 동물의 그림을 보여 주고 “이 동물 중 하나가 된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나요?”라고 묻는다. 학생들은 동물 하나를 선택하고 네 모둠으로 나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동물이 있다면, 진행을 위해서 그 동물을 선택해 줄 학생 세 명을 모집한다.
- ④ 모둠마다 기록자 한 명을 정해서 그 동물을 선택한 까닭을 활동지에 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동물을 선택하지 않은 까닭도 활동지에 쓴다.
- ⑤ 활동지를 모두 모아서 붙인다. 먼저 한 모둠에서 그 동물이 되고 싶다고 선택한 까닭을 발표한다. 나머지 세 모둠에서는 그 동물을 선택하지 않은 까닭을 읽는다.
- ⑥ 모든 모둠이 발표한 뒤, 이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을 토의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사물을 다르게 바라본다.”, “어떤 사람이 좋게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나쁘게 볼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어떤 특징이든 긍정적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일 수도 있으며,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토의한다.

• 활동지 예시

우리 모듬은
(사자 / 독수리 / 거북이 / 카멜레온)입니다.

우리 모듬이 이 동물을 선택한 까닭

우리 모듬이 아래 동물을 선택하지 않은 까닭

() () ()

— 제인 넬슨 외,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의 비법: 학급 긍정 훈육법』